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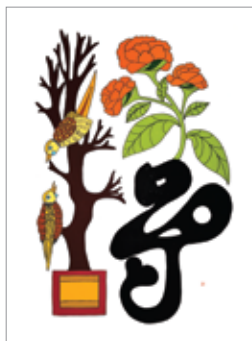
미래설계를 위한

# 행복 knowhow



05

MAY 2016  
vol.17  
MONTHLY MAGAZINE



표지 작품 '나무'

가꿈은 누군가를 위해 한 그루 나무를 심는 일의 위대함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겠다.

누군가와 더불어 살고 있다는 고마움, 누군가를 위한 나눔은 삶의 소소한 행복으로 다가온다.

캘리그래피스트 이상현 작가

〈해를 품은 달〉 〈타짜〉 〈국순당 우국생, 백세주〉 〈교촌치킨BI〉

2015. 한글날 기념 Google 한글로고 제작


2015. 한국브랜드 대상 수상 (한국CPI협회)

사.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부회장, 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상임이사, 한국미술협회 이사,

희망찬 사람은  
그 사랑이  
희망이다

길을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길이다

사랑만이  
희망이다

박노해  
사랑만이 희망이다' 중에서  
새터 이상현승 

# 지금, 당신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 What is your deficiency?

### 결핍은 행복의 필수조건

내가 가진 결핍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어느 정도의 결핍'이 행복의 필수조건이라고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말한다. 법정 스님의 글 중에 '무소유'라는 유명한 내용이 있다.

스님이 애지중지 키우던 난초를 친구에게 주고 난 다음에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서운함보다는 훌거운 마음이 앞섰다는 내용이다.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겨 주어야 했고,

겨울에는 실내 온도를 내리기도 하며 키운 난초가 걱정되어 어디 멀리 나가지도 못했다고 한다. 이를 돌아보니 지나친 집착의 마음이 느껴졌다는 내용이었다.

생각해보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닌 '있는 것'이다. '부족함'이 아닌 '넘침'이 불행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이다.





### '넘침'이 불편과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행복에는 적당한 결핍, 적당한 불편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넘침이다.  
 점심시간 때 간혹 들르는 식당에서 우리는 얼핏 봐도 수십 가지가 넘는 메뉴판을 앞에 두고 무엇을 먹을까 난감해 하다 결국 '아무거나'를 외치기도 한다.  
 넘치는 식욕은 또 어떤가. 굳이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넘치는 식욕 때문에 복부지방에 살을 더하기도 한다. 소지품에 대한 넘치는 욕구도 주체하기 힘들다. 지갑이나 가방, 신발이나 옷, 심지어 문구용품까지 필요가 아닌 단지 '원한다'는 이유로 구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있으나 없으나 한 것들로 전략하고 만다.

큰 집을 마련하면 행복할 줄 알았으나 대출로 얻은 집은 곧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된다.  
 은행 빚을 갚느라 허덕이는 것도 모자라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 오면 뒷목이 뻗뻗해진다.

### '없음'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

반면, 없어서 행복한 일도 많다.  
 자가용이 없는 사람은 뚜벅이 생활이 불편하긴 해도 사고가 나거나 사고를 낼 걱정이 없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불필요한 살림살이가 없는 집은 청소가 편하니 얼마나 좋은가.  
 옷이 많지 않으면 매일 아침 옷 고르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니 편하고,  
 가방이 많지 않으면 오늘은 어떤 가방을 들고 갈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가방을 바꿀 때마다 소지품을 옮기느라 이것저것 빼먹는 실수를 하지 않아 좋다.  
 없는 것이 오히려 행복의 원천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 미국에서는 '가정 정리사'라는 직업이 인기라고 한다.

### 한 접시의 딸기 생크림 케익

집안에 쌓인 온갖 잡동사니나 물건을 깨끗이 치워주는 가정 정리사의 비결은 '닥치는 대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이다. 쓰레기 소굴 같은 집을 정리정돈 해 놓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고객들이 매우 행복해한다고 한다.

사람들은 필요 없는 물건도 잔뜩 사들이고 그걸 처치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고 흉한 쓰레기로 만든다. 일단 돈을 벌면 부를 과시하기 위해 이것저것 끝없이 사들인다. 과시욕과 허기증은 결코 그 끝을 알 수 없다. 끝이 없으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산꼭대기까지 무거운 바위를 끌고 없이 되풀이해서 밀어 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은 시지프스와 다를 게 무엇인가.

요즘 서점가에는 '미니멀리스트' 트렌드가 한창이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리고 꼭 필요한 것들만 최소한으로 남겨놓는 것이다.  
 이른바 '물건 없는 생활'이다. 삶의 부피를 줄이고 불필요한 물건을 없앤 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바로 '행복감'이다. 없는 것이 주는 편안함과 행복감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다는 게 미니멀리스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결핍이란 것은 어쩌면 행복을 위해 선택적으로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의식주 중 그 어떤 것도 해결하기 힘든 결핍은 사람을 불행에 빠트리게 되지만 그 역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배고픈 사람에게 한 접시의 딸기 생크림 케익은 얼마나 큰 행복일까!

지금 당신의 결핍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핍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삶의 행복은 어떤 것일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 CONTENTS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6년 05월호 vol.17

MONTHLY MAGAZINE. MAY 2016



## 08

행복을 주는 사람 | 김기선 SBA희망설계재능기부연구소 전문위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삶의 조각들. 그 조각들이 맞춰져 온전한 삶이 만들어진다. 그것이 바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생이다. "삶의 희망은 지금 이곳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청년창업멘토 김기선 전문위원은 자신이 선택한 지금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에, 시대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일로 활기찬 인생 2막을 펼쳐나가고 있다.

## I 4

행복메신저 | 이영화 KEB하나은행 LS용산타워 신용산출장소 차장

호감을 주는 미소, 신뢰를 주는 전문성이 이보다 더 조화로울 수는 없다. 손님을 향한 정직한 미소와 견고한 실적은 어느새 손님들의 행복으로 열매를 맺는다. 손님을 만나는 순간만큼은 생애 단 하나의 귀한 인연을 의미하는 일기일회(一期一會)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이영화 KEB하나은행 LS용산타워 신용산출장소 차장. 이것이 손님을 향한 그녀의 진심이다.

## 28

Alone, together | 바둑에서 배우는 인생의 지혜

4,000년 전 인류 사회에 등장한 바둑은 극히 간단한 규칙을 바탕으로 방대한 변수를 만들어내는 게임이다. 얼마 전 인공지능 로봇인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의 격돌이 연일 화제가 됐다. 그러나 정작 그 논의의 중심에서 '바둑'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바둑이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간재한 이유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인생관과 삶의 철학 때문일 것이다.

## 40

부동산 이슈 | 4.13총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 시장수급이 더 중요

4.13 총선이 여소아대로 마무리되면서, 선거 결과가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 4.13 총선이 부동산시장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어쩌면 선거라는 불투명한 변수를 없앴다는 점이 아닐까. 4.13 총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살펴보자.

### OPENING



02 **행복을 위한 질문**  
지금, 당신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 INTERVIEW



08 **행복을 주는 사람**  
인생 2막, 희망의 멘토가 되다

### INFO GRAPHY



I 2 **한눈에 보는 연금 세상**  
주택연금 가입 및 수급상황

### 행복미래설계



I 4 **행복메신저**  
정직한 미소로 손님에게 진심을 전하다

I 6 **H씨의 행복설계**  
자산포트폴리오 조정, 적극적인 금융자산 운용으로 안정적 노후 준비

20 **지식 플라자-세무**  
금융소득종합과세, 아는 만큼 돈 된다

22 **지식 플라자-상품소개**  
주택연금 3종 세트

24 **Do! Dream**  
도전하는 미래를 위한 인생.팀 강좌들

26 **Anti aging**  
단맛 경제주의보!

28 **Alone, together**  
바둑에서 배우는 인생의 지혜

### 연금이슈포커스



30 **연금 포커스**  
일본 노후과산, 우리도 대비가 필요하다

### 경제 TREND



36 **경제 이슈**  
한국판 양적완화? 재정정책과의 조화가 우선되어야

40 **부동산 이슈**  
4.13총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 시장수급이 더 중요

### GLOBAL



44 **지구인 이야기**  
2050년, 전 세계 노인 62%가 아시아에 집중

### FUTURE



46 **은퇴, 버킷리스트**  
여섯 줄의 선물로 행복을 더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월간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6년 05월호 vol.17 (통권 17호)

발행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록번호 영등포, 리00424 등록일 2015.01.27 제호 행복Knowhow 간판 월간 발행인 배현기 편집인 김대익 발행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금융투자빌딩 12층 발행일 2016년 05월 4일 전화 02-2002-2200 팩스 02-2002-2610 홈페이지 www.hanaif.re.kr 편집위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박지홍 연구원, KEB하나은행 | 이종연 팀장, 최호재 팀장, 하나금융투자 | 이정철 부장, 하나생명 | 최춘석 차장 제작 및 기획 토크커뮤니케이션즈 전화 02-3452-3789 홈페이지 www.teum.co.kr





김기선 • SBA희망설계재능기부연구소 전문위원

## 인생 2막, 희망의 멘토가 되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삶의 조각들. 그 조각들이 맞춰져 온전한 삶이 만들어진다. 그것이 바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생이다. “삶의 희망은 지금 이곳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청년창업멘토 김기선 전문위원은 자신이 선택한 지금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에, 시대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일로 활기찬 인생 2막을 펼쳐나가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넓은 길, 샅길, 막다른 길,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굽은 길을 이미 지나 온 선배들의 생생한 조언이 때론 필요하다.

30여년을 대우 디자인 연구소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김기선 씨는 30여년을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는 젊은 사람들은 가보지 못한 인생의 수많은 산을 넘어왔고, 그 속에서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삶의 지혜를 얻었다.

혹자는 말한다. 의미 있는 노년의 시간을 엮어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얻게 된 지혜를 세상 사람들과 따뜻하게 나누는 일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그는 의미 있는 인생 2막을 위해 경험과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멘토’의 삶을 선택해 도전했다.

“그동안 쌓은 경력과 경험을 나눌 수 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기 위한 자연스러운 도전이었다”며 “사회에 기여도 하고 새로운 도전도 할 수 있는 창업멘토로서의 삶은 인생 2막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갖기에 충분했다”고 말한다.

### 8개월 휴식기간에 여행하며 인생 2막 차근차근 설계해

퇴직 후 멘토의 삶을 찾기까지 여느 퇴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2007년 대우에서 퇴직한 후 제일 먼저 그는 8개월 정도 휴식기간을 가졌다. 그동안 일하느라 챙기지 못한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하며 인생 2막을 차근차근 설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 것이다.

“퇴직 후 아내의 응원이 없었다면 용기를 내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휴식기간 동안 아내와 함께 농촌마을 등 지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휴식도 하고 제2의 도전을 위한 준비도 틈틈이 했다”고 설명한다.

휴식이 끝날 무렵 그가 선택한 첫 도전은 예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농촌마을’사업이었다. 좋은 농작물을 생산하면서도 홍보, 마케팅 등 사업화에 대한 기술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마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우연한 기회에 농민들로 구성된 마을기업의 특산물을 상품화하는 과정에 참여했어요. 농산물을 홍보, 포장, 상품화, 원가계산 등에 대해 조언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죠.”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그는 과감히 관련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직접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화에 뛰어든 것이다. 하지만 자금 문제에 봉착해 첫 도전은 이쉽게 실패로 끝났다. 그런 후 그는 재능기부에 관심을 돌려 서울산업진흥원(이하 SBA) 희망설계아카데미에 문을 두드렸다.

### 보수, 업무환경 열악하지만 희망을 설계하는 청년창업멘토 매력적

“젊은 세대에게 삶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일은 값진 일입니다. 퇴직 후에도 일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서 여생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일이 멘토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는 SBA희망설계아카데미에서 실무 교육을 받고 본격적으로 청년창업멘토로 활동을 시작했다. “SBA희망설계아카데미는 저와 비슷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후 퇴직한 이들이 재능기부를 위해 모여 실무를 배우는 곳”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아카데미 출신으로 구성된 희망설계재능기부연구소는 직장생활 20년 이상의 현장 전문가 107명이 소속되어 있다. 경영지도사, 기술사, 마케팅, 유통, 기계, 금융, 화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청년창업멘토로서 주로 청년 창업자들의 사업계획서를 조언하고, 수익모델 홍보, 생산성, 품질, 시장 소비자 타겟 전략, 디자인 프로세스, 원가관리 등 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 디자인연구소에서의 경험을 살려 디자인 보호 가이드와 디자인관련 교육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달려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욕심을 버리고 내 경험을 나누다는 좋은 취지로 도전한 멘토 일이지만 쉽지만은 않다”고 토로한다. 주로 시간제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등 정해진 곳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아닌데다 노후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 우리나라는 창업멘토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제도적인 시스템이 척박하기만 하다. 하지만 그는 이런 부분에 대해 마음을 비운다면 보람도 큰 일이라고 얘기한다. 창업 조언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성공한 후 찾아와 ‘고맙다’고 인사를 할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람으로 가슴 벅차기도 한다고. 그는 또 재능기부에 대한 철학도 내놓았다. “봉사와 재능기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봉사로 한 일은 일에 대한 댓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좋고, 재능기부의 경우엔 일에 대한 어느 정도 금전적 댓가도 포함되는 일”이라고 말한다.

### 주변을 돌보며 삶을 나누고, 하고 싶은 일 선택해 배움으로 준비해야

그에게 지혜로운 인생 2막 설계를 위한 멘토링을 부탁했다. 그는 5가지를 주문하고 있다. 첫 번째는 퇴직 후 6개월 정도 마음을 비우라는 것이다. 휴식 기간 동안 제2의 인생을 위해 체계적인 디자인을 해보라는 것이다.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라고 조언한다. 두 번째는 지금 내 주변을 돌아보는 일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안부도 전하고 삶을 나누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인다. 세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잘되는 사업만을 좇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네 번째는 배움이다. 인생 2막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도전할 분야가 정해지면 전문가 수준으로 배우고 공부를 하라고 주문한다. 다섯 번째는 건강이다. 육체적으로는 ‘건강’과 정신적으로는 욕심을 내려놓는 ‘비움’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3년 안에 퇴직자 창업교육 도전, 삶을 나누는 카페 운영 계획

앞으로도 그는 도전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3년 안에 조기퇴직자들을 위한 창업교육과 정신교육을 위한 멘토에 도전할 계획이다. 또 퇴직 후의 살아온 인생을 나누고 현재를 공유할 수 있는 힐링 카페 운영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계획도 설계하고 있다. 지금, 60대 후반을 달려가고 있는 그이지만 멈추지 않는 도전, 용기와 열정으로 누구보다도 젊고 다이내믹한 인생 2막을 엮어나가고 있다.



“  
젊은 세대에게 삶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일은 값진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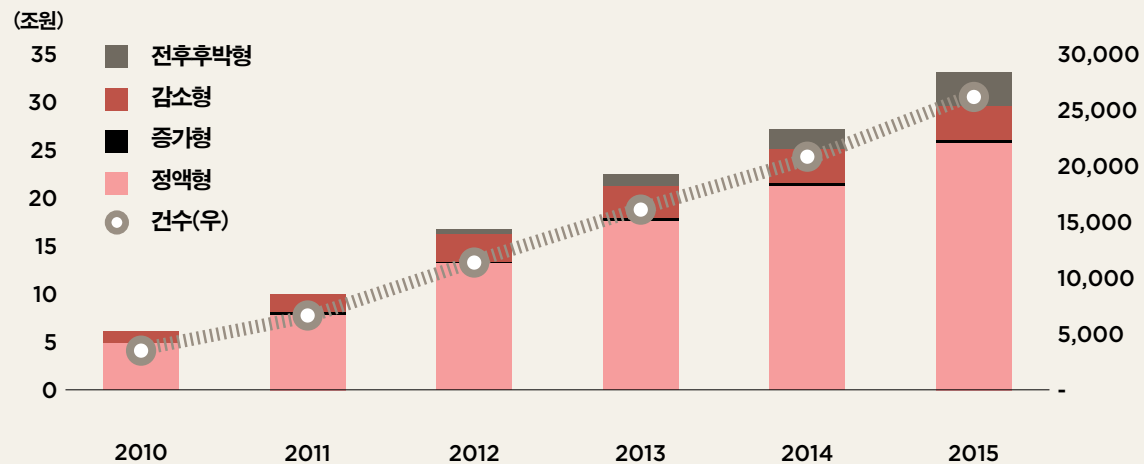
퇴직 후에도 일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서  
여생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일이  
멘토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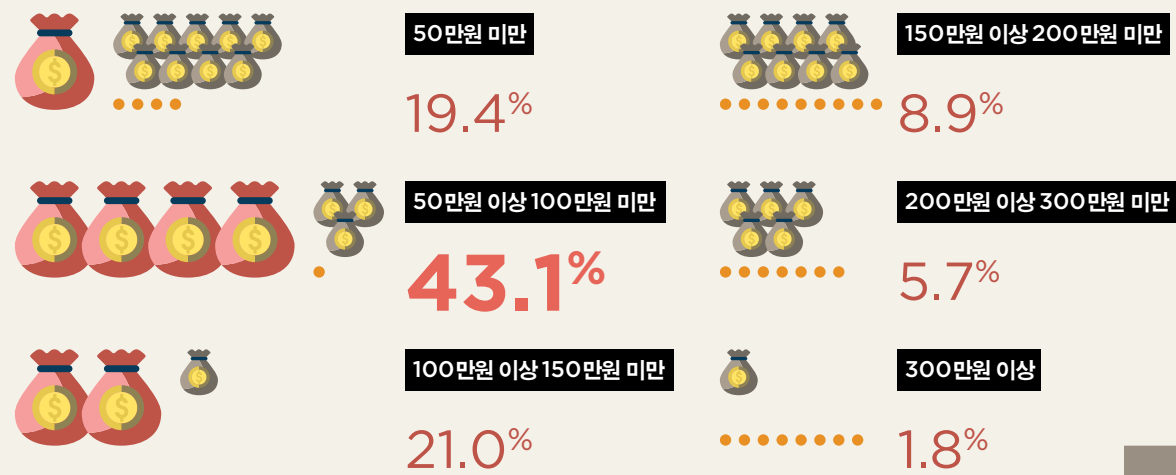
### 주택연금의 지급유형별 보증잔액 및 건수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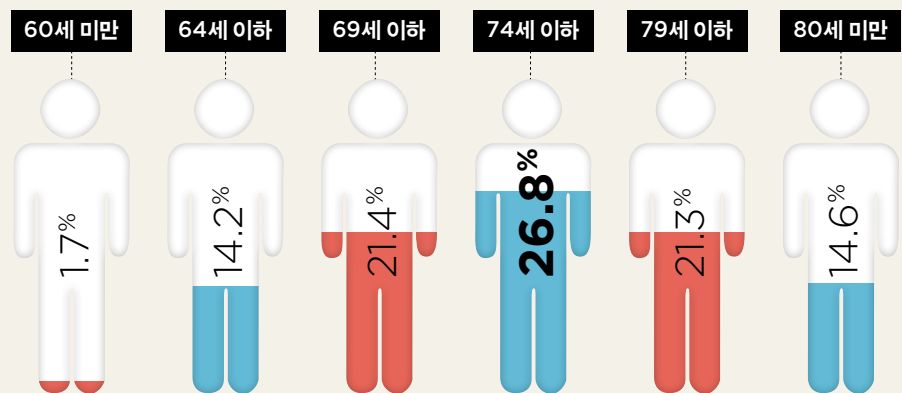
### 주택연금 월지급금 분포

주 : 2007 - 2016.2 |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연령대별 주택연금 가입 현황

주 : 2007 - 2016.2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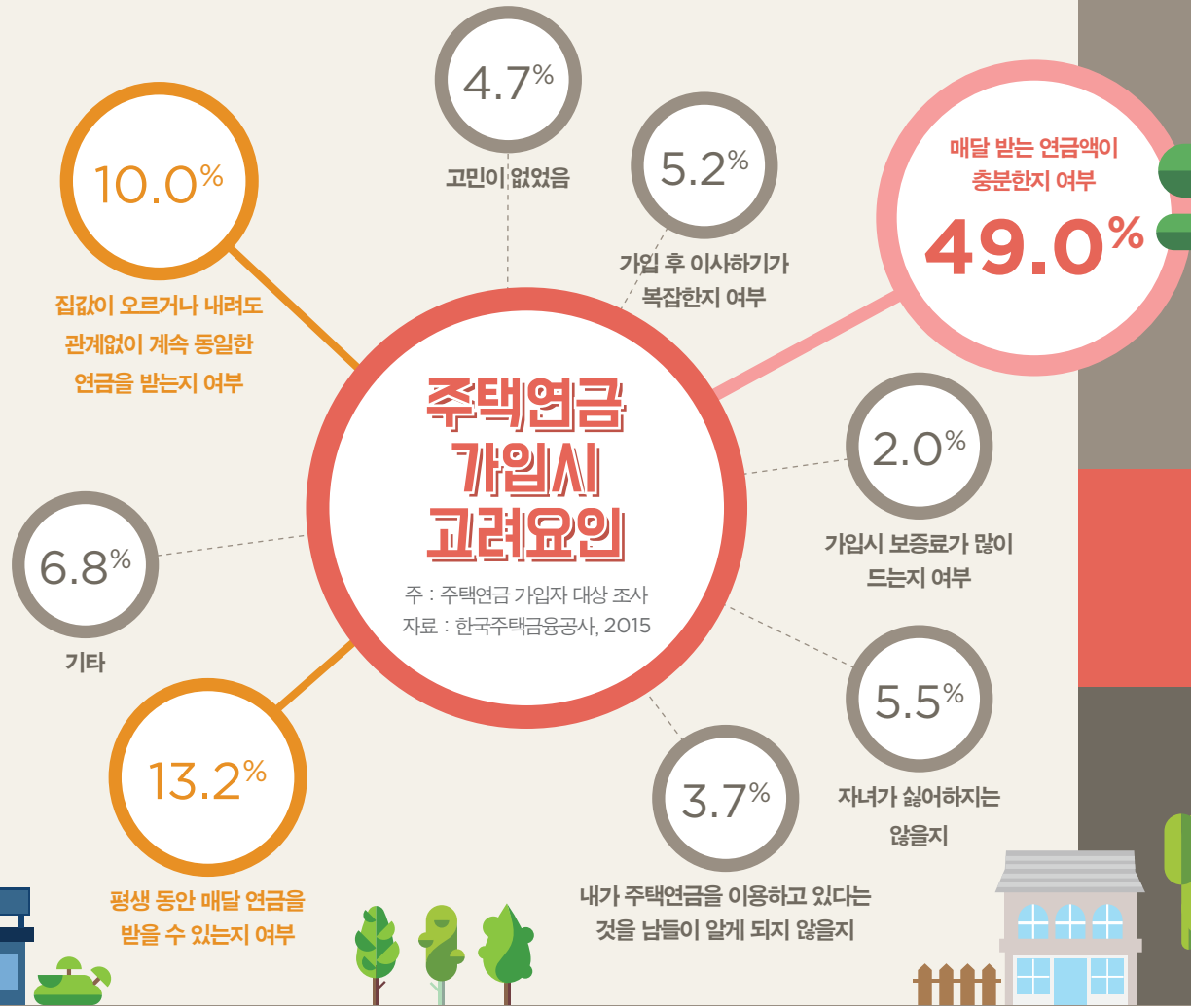


## 주택연금 가입 및 수급상황

주택연금 가입시 과반수 정도가 매달 받는 연금이 충분한지를 고려하여 가입하고, 월지급기준 50~100만원 수령자가 가장 많음

### 주택연금 가입시 고려요인

주 : 주택연금 가입자 대상 조사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2015



내가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남들이 알게 되지 않을까



# 정직한 미소로 손님에게 진심을 전하다

이영화  
KEB하나은행 LS용산타워  
신용산 출장소 차장



호감을 주는 미소, 신뢰를 주는 전문성이 이보다 더 조화로우 수는 없다.

손님을 향한 정직한 미소와 견고한 실적은 어느새 손님의 행복으로 열매를 맺는다. 손님을 만나는 순간만큼은 생애 단 하나의 귀한 인연을 의미하는 일기일회(一期一會)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이영화 KEB하나은행 LS용산타워 신용산출장소 차장. 이것이 손님을 향한 그녀의 진심이다.

“손님과의 신뢰 관계가 중요합니다. 감성적인 교감은 물론 전문가로서의 통찰력도 있어야 하죠.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을 따지기보다는 손님이 원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대하되, 원하는 것이 파악되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만이 정석입니다.”

손님을 대할 때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이영화 차장은 입행 후 VIP실, CS담당부서를 거친 그야말로 CS전문가. 이러한 경력 덕분에 그녀의 손님을 향한 주파수는 정확하다. 손님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해 재무적인 솔루션과 마음의 솔루션까지 제시하고 있고, 손님의 신뢰는 당연한 결과로 따라온다. 또 CS전문가답게 손님과의 감성적인 교감을 위한 그녀만의 방법도 귀뿔한다. “찾아오는 손님들을 한 분 한 분 머릿속에 기록하려고 노력합니다. 외모, 습관, 이미지 등으로 포인트를 잡아 기억해줬다가 다가가면 더 친근해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이 차장은 수신, VIP, 가계대출, 퇴직연금 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신용산 출장소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 “저는 사내에서 ‘함께’의 업무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행복해야 손님에게 행복한 미소를 발현할 수 있는 법이죠. 행복한 팀 내 분위기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리더의 철학 덕분에인지 신용산 출장소에는 늦어지는 퇴근시간에도 불구하고 웃음꽃이 만발했다.

행복메신저  
에피소드

어느 날 입출금 거래만 하시는 손님께서 환율 및 예금 금리를 문의하셔서 항상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은 없으니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펀드, 달러, 채권 등 자산을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사실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니다. 기존에도 권유나 설명을 드리면 듣고만 가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일 뒤 타 은행에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했었는데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 답을 제시했다며 본인과 사모님 명의로 외화예금, 연금이체, 관리비 등 각종 자동이체 변경까지 해 주거래 손님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니다.

행복메신저  
팁

### 자산관리 TIP

- 1. 채권형 펀드에 가입하라.** 은퇴 후 필요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높은 수익률을 얻겠다고 리스크가 큰 상품에 투자했다가는 원금도 잃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채권형 펀드는 위험은 주식보다 낮고 수익률은 예·적금보다 높다.
- 2. 연금상품을 활용하라.**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합산해서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고, 퇴직 후에는 매월 연금수령으로 일정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라.** 연간 2,000만원씩 최대 5년간 투자한 1억원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을 연소득에 따라 2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해 노후 자금의 기초를 마련해 놓는 것이 좋다.



# 자산포트폴리오 조정, 적극적인 금융자산 운용으로 안정적 노후 준비

회사원인 H씨는 가정주부인 부인과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H씨는 근로소득이 높으며 다양한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등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통해 월세도 수령하고 있어 현재 생활은 물론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대출원리금 상환이 걸림돌이다. 또한 아직 어린 자녀에게 들어갈 비용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현명한 자산관리 방안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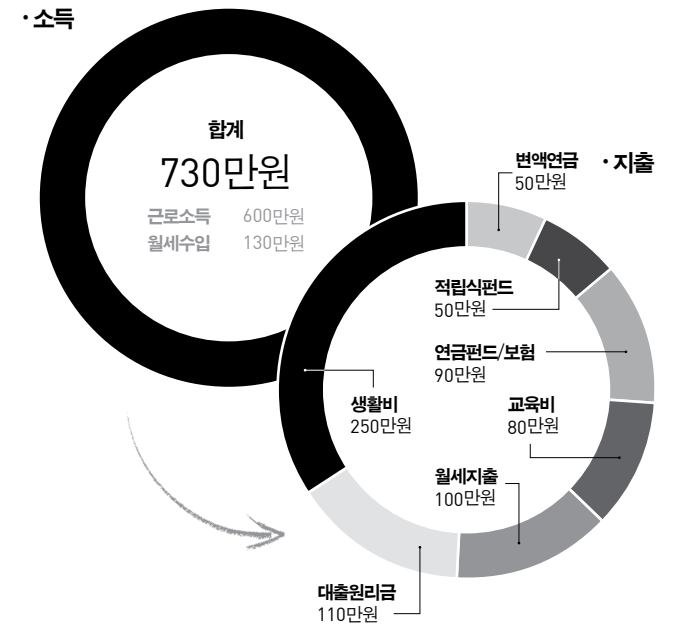


##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월세 및 대출 상환으로 고민

회사원인 H씨(만 38세)는 가정주부인 부인과 슬하에 4세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현재 H씨는 부동산자산으로 약 4.7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1,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A지역에 위치한 보유 아파트는 보증금 5,000만원(금융부채)에 월세 130만원으로 세를 주고 있으며, H씨 가족은 서울 B지역에서 보증금 1.5억원(금융자산)에 월세 100만원으로 세를 살고 있다. 한편 부동산 관련 자산 부채를 제외한 금융자산으로는 변액연금 5,000만원, 연금저축펀드 7,500만원, 일반연금 2,000만원이 있으며, 부채로는 주택담보대출 2억원, 전세자금대출 1.2억원이 있다.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월 600만원 가량의 근로소득과 130만원의 월세수입이 있는 반면 지출은 생활비 250만원, 대출원리금 110만원, 월세지출 100만원, 교육비 80만원, 연금펀드/보험 90만원, 적립식펀드 50만원, 변액연금 50만원이 있다. H씨는 근로소득이 높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 체계 구축에도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금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통해 월세도 수령하고 있어 현재 생활은 물론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가족의 거주를 위한 월세 아파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세자금대출로 인해 많은 대출원리금 상환이 발생하는데 반해, 월세의 수입지출을 통해 창출되는 소득이 많지 않아 노후 준비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어린 자녀의 교육비(5,000만원 예상), 결혼비용(2억원 예상) 등을 생각하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

### 현재 재산 및 소득흐름

· 자산	아파트	4억 7,000만 원
	실물자산	1,000만 원
	변액연금	5,000만 원
	연금저축펀드	7,500만 원
	월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일반연금 등	2,000만 원
	· 부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1억 2,000만 원
	월세보증금	5,000만 원
· 순자산		4억 500만 원



## 55세에 은퇴할 예정이며 노후 생활비로 월 300만원을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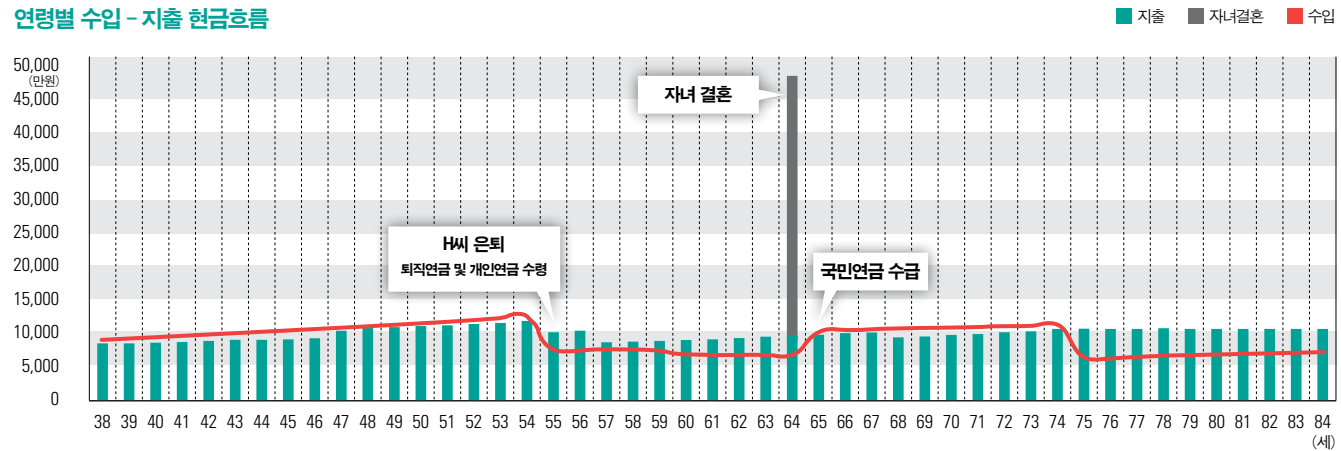
H씨는 은퇴시기를 55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85세까지의 미래 설계를 원한다. 현재 H씨 부부는 생활비로 25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노후에는 보다 편안한 생활을 위해 월 3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H씨 부부는 국민연금, 퇴직연

금, 개인연금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65세부터 매월 약 15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55세부터 20년간 월 144만원씩 수령할 계획이다. 개인연금의 경우 H씨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일



반연금, 연금저축, 변액연금 등 3가지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반연금의 경우 55세부터 5년간 65만원씩 수령하며 연금저축과 변액연금은 55세부터 20년간 각각 매월 158만원, 94만원씩 수령할 예정이다. H씨 부부의 은퇴 준비 상태 파악을 위해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sup>1)</sup>을 살펴보면, 은퇴 직전인 55세까지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국민연금 수급 전인 65세까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생활하게 되는데 수입 대비 지출 규모가 커져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65세부터는 다소 여유자금이 발생하지만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수급이 끝나는 75세부터는 다시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자금 부족이 발생하는 구간에 기존에 확보해 둔 금융자산을 활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을 종합해보면 현재부터 H씨 은퇴 전인 54세까지 약 1.3억원의 금융자산이 확보되는 반면, 지출은 약 4.4억원이 예상된다. 따라서 총 3.1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자금 확보가 요구된다.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



자산포트폴리오 조정,

금융자산 운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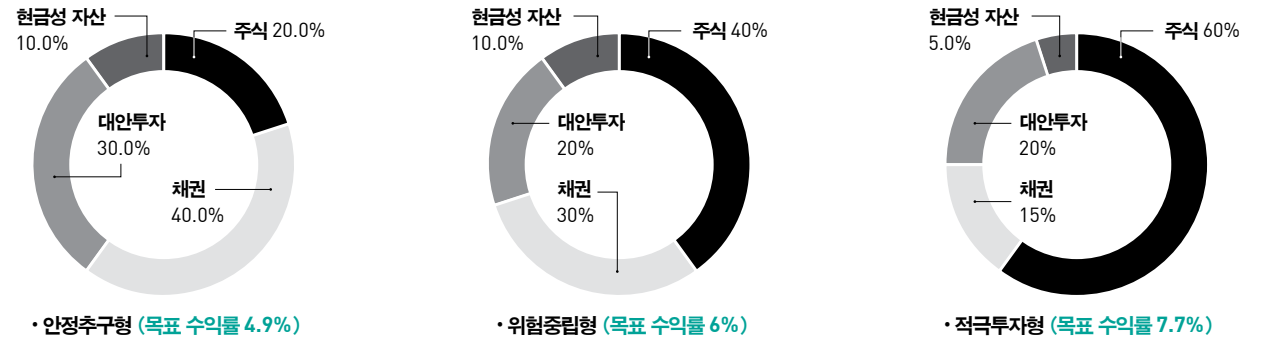
우선 H씨가 해야 할 일은 자산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본인 소유의 아파트는 월세를 주며, 타인 소유의 아파트에 월세를 사는 상황이 지속<sup>2)</sup>된다 하더라도 H씨에게 큰 실익은 없다.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출이자도 월 30만원 정도인데 월세 수입 및 지출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30만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에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월세보증금 또는 월세 상승 등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감안하면 굳이 타인의 집에 월세를 내고 본인의 집에서 월세를 받는 상황을 지속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산포트폴리오의 조정이 이뤄졌다면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융자산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봐야 한다. 현재 H씨는 은퇴 후 희망 생활비로 월 300만원을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은퇴 전 축적되는 금융자산을 연 8.89%의 수익률로

운용해야 한다. 하지만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의 목표수익률이 7.7%임을 감안하면 금융자산의 운용만으로는 불가능한 수익률 수준이다. 따라서 생활비 등 기존 지출을 일부 줄이고 추가적인 저축이 필요한데, 은퇴 전까지 매월 15만원 정도를 추가로 저축한다면 적극투자형 목표수익률 수준에 맞춰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만약 기존 지출을 줄이는 것이 어렵다면 주택연금 활용 등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유동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기존 지출을 줄이거나 부동산자산 유동화를 원치 않는다면 예상 노후 생활비를 축소하는 방법이 있다. H씨의 경우 만 38세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긴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예상 노후 생활비 수준을 소폭 낮추어 위험중립형 혹은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 목

1) 물가상승률은 2.5%를 가정하고 수입은 근로소득과 연금이 포함되며, 지출은 생활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포함. 한편 고령으로 접어들수록 필요 생활비가 적게 소요됨을 감안해 75세부터 발생하는 노후생활비는 물가상승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2) 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은 만기 없이 이자만 납입하며, 월세보증금의 경우 변동이 없다고 가정

표수익률에 맞춰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노후 예상 생활비를 월 300만원에서 275만원으로 줄이면 금융자산을 적극투자형 목표수익률 수준인 7.7%대로 낮춰 운용이 가능하고, 250만원으로 줄이면 위험중립형 목표수익률인 6%대로 운용해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그대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를 자녀에게 상속해주는 것이 가능하다.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 주 :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머니TALK'를 통해 매일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 제시 \* 자료 : 하나금융투자, '머니TALK', 201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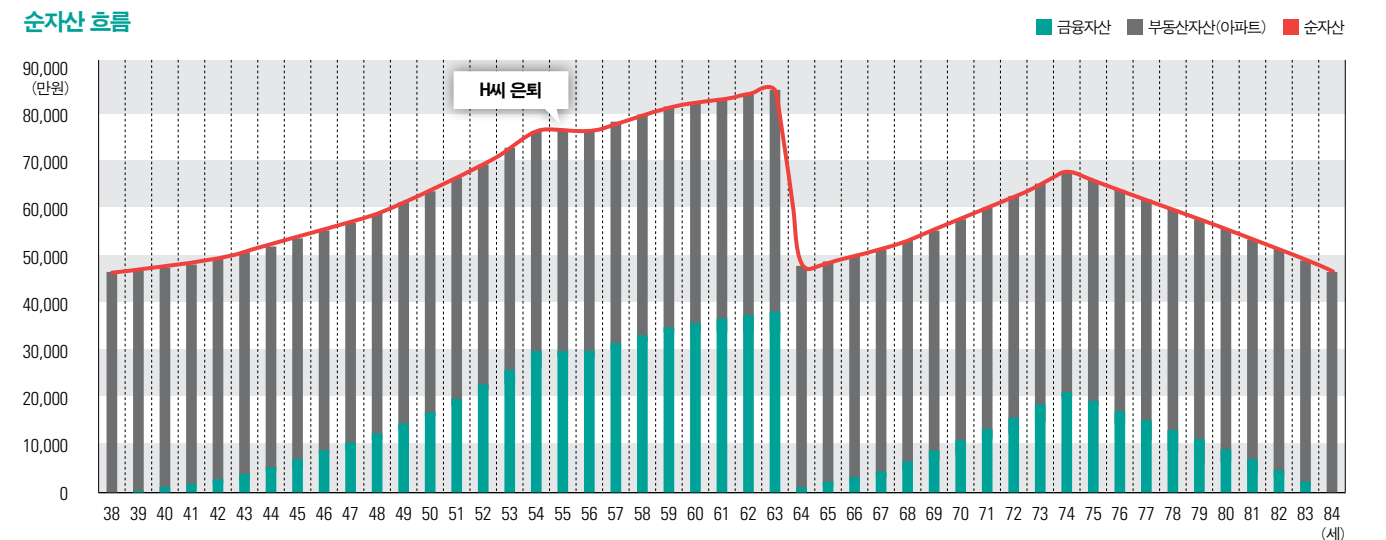
원활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균형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

H씨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보유 아파트를 통한 현금 파이프라인 구축을 도모했다.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발생하는 월세 수입 대비 월세 지출 및 대출금 상환 등을 생각하면 현재 상황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을 우선 제시했다. 그리고 부족한 노후 자금을 대해서는 젊은 나이를 감안해 기존 금융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되 추가적인 저축주택연금 활용-노후 예상생활비

축소 등을 통해 다소 높은 수익률에 대한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다만, H씨의 경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연금 구조를 안정적으로 확립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제시된 방법 외에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진 않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3층 연금 구조 확립을 통한 현금 파이프라인 구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현금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해 과도한 부채를 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순자산 흐름



#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는 만큼 돈 된다

손님과 상담을 하다 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떤 손님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도록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은 금융상품을 해지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민감한 걸까?

현명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절세는 물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1인당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소득의 크기와 자신의 다른 종합소득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7,000만원까지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없다. 하지만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있는 사람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면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생긴다.

## 세금 외에 늘어나는 것

전업주부와 같이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부담은 늘지 않지만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성격의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던 전업주부라면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 등은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을 기본으로 부과되는데, 이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경우 본인 스스로 부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와 별도로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경우에는 소득 외에도 재산 정도와 자동차 소유여부 및 연령 등을 모두 감안한 금액이 부과된다. 건강보험료 등은 세금과 달리 1년에 한 번 내는 것이 아니라 매월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진다.

##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

대부분의 손님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낮아져 연간 대상자가 10만 명 이상이 된 상황에서 단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손님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자산과 소득이 많을수록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높아지고, 특히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산에서 얻은 소득으로 조사를 받을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거액의 세금을 추정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법

그러면 금융소득을 어떻게 관리해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금융상품 별로 수입시기를 확인해서 금융소득의 수입시기를 분산하는 것이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보유한 자산의 특성과 연도별로 발생할 금융소득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예상하여 시기를 조절, 연도별로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금융소득을 시기별, 대상별로 분산하는 방법을 고려

두 번째는 금융소득을 가족에게 분산하는 것이다. 금융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한 사람 명의로 소득을 집중시키기보다는 가족명의로 소득을 분산할 경우, 가족이 벌어들인 총 소득은 같더라도 적용 받는 세율이 낮아져서 전체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렇게 명의를 분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신고를 통해서 명의를 이전해야 하며, 증여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국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가족들로 분산을 하되, 증여세 공제한도(배우자 10년간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내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제한도 범위 이내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통해서 증여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 절세상품을 활용

세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투자를 할 때부터 절세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상품이나 일정한 세율로 세금을 내기는 하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진정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올해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해외주식펀드 등도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들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수익률이 낮은 금융상품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절세를 고려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세금 때문에 수익률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부의 비과세·감면 축소정책으로 갈수록 절세상품이 사라져가고 있는 요즘, 초기에 절세상품부터 꼼꼼하게 챙기는 지혜를 발휘해 보자.



## 주택연금 3종 세트

정책당국은 주택연금의 활성화를 통해 가계의 노후보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등 주택연금 3종 세트를 4월 25일 출시했다. 주택연금 3종 세트의 출시는 고령층의 노후 준비가 늦게 시작돼 공적 연금만으로 커버하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판단될뿐 아니라 주택 등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아 이들 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노후준비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연금 3종 세트는 60대 이상을 겨냥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상품, 40~50대 장년층을 대상으로 주택구입과 연계한 상품, 주택가격 1.5억원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주택을 소유한 분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부를 인출해 대출을 상환하고 잔여분을 매월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따라서 대출 상환용 일시금의 인출 한도를 현행 50%에서 70%까지 늘려주어 대출을 보다 원활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상품인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은 40~50대에 포커싱한 상품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거나 기존의 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연금의 가입약정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60세에 주택연금을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를 15bp 우대해 주는 상품이다. 마지막으로 저가주택 보유자를 위한 주택연금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주택가격이 1.5억원 이하이면서 부부기준 1주택 소유자인 경우 월 연금을 최대 15%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상의 주택연금 가입은 주택금융공사 지점, KEB하나은행 등 12개 은행 영업점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 받아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노후준비가 미흡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주택연금 3종 세트를 적절하게 활용해 미흡한 노후준비를 재설계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주택연금 3종 세트 주요내용

구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b>가입 대상</b>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 또는 보유주택 합산 9억원 이하 다주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 · 무주택자 또는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b>특성</b>	· 연금지급한도의 70%까지 일시인출 가능 · 종신 정액형만 선택 가능 · 대출금리 0.1%p 인하	· 연금전환 시 전환 장려금 지급 (15bp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이자) · 만 60세가 된 후 전환 가능 · 대출만기는 만 60세 이상이 되도록 선택	· 일반주택연금보다 8~15% 수준의 높은 월지급금 지급 · 연금지급한도 45% 이내 수시인출 가능 · 종신 정액형만 선택 가능
<b>가입비 및 보증료</b>	·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0% · 연보증료: 연금지급총액의 연 1.0%	·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 · 연보증료: 연금지급총액의 연 0.75%	
<b>종료 및 상환</b>	· 종료사유: 부부모두 사망, 1년 이상 미거주, 주택소유권 상실 등 · 잔액상환: 연금지급총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해도 차액납부의무 없음		

# 나를 위한 보장, 가족을 위한 Top3<sup>+</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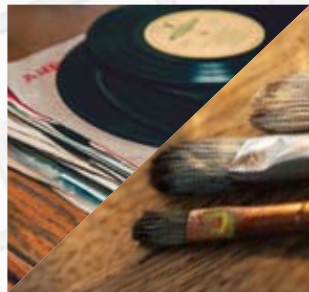
노후보장을 위한 하나생명 Top3<sup>+</sup>! 가족 생활자금을 위한 Top3<sup>+</sup>!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본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합법적인 자필 서명인에 반드시 본인인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 가입시 모든 경우 보증금이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해금지보보험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하며, 보호 권리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계약의 모든 예금보험 대상 금융상품의 예치금(예금)에 한하여 시 보험회사나 사고보험금에 기부금(보험금)을 합하여 원상 "최고 50만원"이며, 50만원의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험회사에 납부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납부자가 법적인 경우는 제외하며, 예금(보험금)사 전화: 1588-0037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험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생명 고객센터 080-3488-7000



# 도전하는 미래를 위한 인.생.템 강좌들

인생2막,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누구나 꿈꾸는 미래의 모습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생2막을 꿈꾸며 새로운 강의를 경험해보자. 인생을 바꿀 '인생템' 강좌를 만나게 될 수도 있으니까.



### •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 미술 강좌 • 풍월당 아카데미 · 서울시립미술관 시민미술아카데미

음악에 관심이 많다면 풍월당 아카데미([www.pungwoldang.kr](http://www.pungwoldang.kr))에 가보자.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과 수많은 음반을 진열한 공간과 함께 아카데미 공간에서는 유명한 오페라 다시듣기 등 다양한 음악강좌가 준비되어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시민미술아카데미(<http://sema.seoul.go.kr>)에서는 재미있고 다양한 미술강좌를 접할 수 있다. 특히 화요명사특강, 원데이클래스 등의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그림도 보고, 예술학 강의도 들으며 소양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 강의는 대부분 무료로 진행해 가볍게 발걸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 • 내 인생에 한번쯤 '작가'로 살아가기 • '저자의 탄생' 8주 책쓰기 강좌 · 한겨레 교육문화센터

'책 쓰기'.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다. 글만 잘 쓴다고 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출판사의 러브콜을 받고, 독자들에게 정보와 흥미를 주는 책을 쓰고 싶다면 책쓰기 강좌에 주목해보자. 책을 쓰는 과정은 진정한 나를 만나는 과정이라고 한다. 베스트셀러인 '일독일행 독서법'의 저자인 유근용과 15년 경력의 베테랑 편집자 권병두가 '저자의 탄생'이라는 8주 책쓰기 강좌를 열었다. 8주간의 교육은 전략적 책쓰기의 비밀, 독자가 원하는 '목차'만들기를 위한 노하우, 출간기획서 작성과 출판계약, 저자

마케팅 등 집필 이후의 과정에 대해 배운다. 한겨레 교육문화센터([www.hanter21.co.kr](http://www.hanter21.co.kr))도 글쓰기, 출판, 작가입문 과정 등 글쓰기 강좌가 충실한 편에 속한다. 전문작가로 활동하기 위한 입문 과정은 물론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쉬운 글쓰기 과정 등 다양한 강좌를 선택해 경험할 수 있다.



### • 내 인생에 새로운 자극이 필요할 때 • 세상을 바꾸는 15분 · 강연 10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즉, '세바시'는 전문가와 학자, 그리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프로그램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보람있는 15분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 삶을 바꿀 아이디어, 꿈을 실현시킨 이들의 스토리텔링 등을 들려준다. 대부분의 세바시 강연은 목동 KT체임버홀에서 이뤄지는데, 참가비는 무료이며, 강연신청은 세바시 홈페이지(<http://change15min.com>)에서 할 수 있다. '강연 100℃'는 인생을 끊는점까지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지혜를 들려주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감동과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투박하지만 진솔한 강연으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 강연 100℃는 평범한 나와는 거리가 있는 듯 보이는 저명하거나 유명한 인사들만이 할 수 있는 강연이 아니다.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을 강연하는 컨셉이다. 직접 강연 현장에 가보면 잃어버린 열정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장 강연 신청은 홈페이지([www.kbs.co.kr/1tv/sisa/100do](http://www.kbs.co.kr/1tv/sisa/100do))에서 할 수 있다.



자료: 한옥아카데미

### • 내 인생에 꼭 한 번, 집짓기 강좌 • 한옥아카데미 · 안동한옥학원

행복한 인생2막을 꿈꾸며 집짓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한옥 집짓기'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책도 발간되고 있지만 직접 한옥시공(대목수)과정을 이수하거나, 문화재 보수기술자 등의 꿈을 꾸는 이들에게 필요한 강좌가 있다. 평생직업교육학원 '한옥아카데미'([hanokschool.net](http://hanokschool.net))에서는 한옥시공(대목수) 과정을 모집하고 있다. 보통 16주 동안 1일 8시간, 총 640시간을 이수하는데 50~10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지원해보면 한다. 또한 '안동한옥학원'에서는 소목과정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1일 7시간 주2일, 3개월에 걸쳐 이뤄지는데 교육비는 월 30만원, 총 90만원이다. 한옥학교 홈페이지([www.rkj.co.kr](http://www.rkj.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단맛 경계주의보!



달달한 설탕의 치명적 유혹을 아직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가.

달콤한 단맛을 좇다가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정신과 진단명으로도 기록된 '설탕 중독'. 자연, 사람과 교감하는 '느린 삶'에서 답을 찾아보자.

세계는 지금 단맛과 전쟁 중이다. 영국의 스타 셰프 제이미 올 리버는 “과당 음료에 20%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외친다. 실제로 프랑스와 캐나다, 멕시코 등 세계가 이미 비만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단맛. 우리도 단맛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 단맛에 대해서는 ‘살이 찐다’, ‘치아가 썩는다’ 등이 경고의 전부였다. 하지만 설탕은 상상 이상으로 무시무시한

존재다. 설탕 중독은 정신과 진단명으로도 버젓이 존재할 정도로 전 세계 정신의학계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설탕으로 인한 폐해는 담배에 못지않다”며 “비만과 당뇨병, 고혈압, 심지어 우울증이나 집중력 장애와 같은 정신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단맛이 가져온 위험은 광범위하다”고 강조한다.

##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맛이 당긴다

설탕이 중독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스트레스’가 큰 역할을 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것이 단맛을 당기도록 자극한다. 잠이 부족해도 단맛을 찾는다. 실제로 수면 부족이 단 음식, 탄수화물 중독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현대인들은 주로 ‘음료’를 통해 설탕을 다량 섭취한다. 특히 무심코 마시는 탄산음료, 커피, 주스 등에 상당한 양의 설탕이 숨어있다. 이밖에도 케이크, 과자, 아이스크림 등 일상 곳곳에는 설탕의 유혹이 가득하다. 특히 설탕은 단순히 기호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독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단맛은 뇌의 보상중추 영역과 관계가 깊다”며, “과다섭취의 이력이 있거나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당류를 섭취했다면 뇌는 더 큰 행복감을 위해 더 많은 당을 섭취하라고 명령 한다”고 설명한다.

## 느린 삶이 설탕 중독 막는다

설탕 중독이 정서불안, 신경증, 심한 경우 환각에 이르는 등 신경 질환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윤대현 서울대병원 교수는 ‘마음 상태’를 꼽는다. “지친 뇌가 설탕 없이 못 살겠다고 외칩니다. 의지가 약해서 설탕을 계속 먹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설탕, 술, 마약 등의 빠른 쾌감을 선사하는 중독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느린 쾌감으로 대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 교수는 사람과의 따뜻한 교감, 자연과의 교감, 문화와 종교적 삶을 추천하고 있다. 설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인간다운 삶’ ‘행복’에 가까이 가는 여정이다. 설탕 중독의 급부상은 어쩌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안한 정서에 대한 반증은 아닐까. 설탕 중독. 느긋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천천히 극복해보자.

## check list

### 체크리스트

나도 중독일까?

이 질문 중 세 가지 이상에 체크를 했다면 당신도 설탕 중독일 가능성이 높다.

- 신맛이 나는 과일보다 단맛이 나는 과일을 좋아한다.
- 스트레스를 받으면 초콜릿이나 케이크처럼 단 음식을 먹는다.
- 원두커피보다는 설탕이 들어간 믹스커피를 좋아한다.
- 배고프지 않는데도 먹을 때가 자주 있다.
- 책상 서랍이나 식탁 위에 항상 과자나 초콜릿 등이 놓여 있다.
- 배가 불러도 달콤한 디저트를 찾는다.
- 항상 다이어트를 하지만 효과가 없다.

### 설탕을 줄이는 생활습관 3

1. 먼저 설탕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직접 담근 청과 꿀을 조금씩 활용해보자. 과실을 발효해 만든 청, 프로폴리스 함유량이 높은 질 좋은 꿀은 비교적 관찮은 단맛이다.

2. 음료수 경계령을 내려라.

하루 설탕 권장량은 각설탕 약 여덟 개. 하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음료에는 권장량 이상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다. 음료수를 마시기 전 꼭 당 함유량을 꼭 확인해보자.

3. 달달한 간식은 3~4시 경에 먹자.

이 시간은 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 시간이다. 단 것을 먹고 싶다면 이때를 활용하자. 가능한 제철 과일을,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갈지 않고 씹어 먹는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 바둑에서 배우는 인생의 지혜

4,000년 전 인류 사회에 등장한 바둑은 극히 간단한 규칙을 바탕으로 방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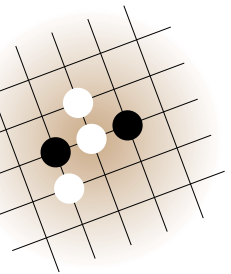
변수를 만들어내는 게임이다. 얼마 전 인공지능 로봇인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의 격돌이

연일 화제가 됐다. 그러나 정작 그 논의의 중심에서 '바둑'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바둑이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건재한 이유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인생관과 삶의 철학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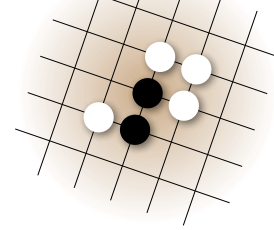
## 생각하는 힘을 길러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집중하여 생각하면 반드시 답이 보인다. 심지어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조차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의외의 답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생각하는 힘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실수도 기회도 모두 내가 만든다. 삶은 그 자체로 시련이다. 오로지 생각하는 힘만이 그 시련을 의미있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는 그 과정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조훈현 9단의 얘기다. 바둑은 한 수 한 수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의 연속이다. 우리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포기하지 않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생각하는 힘을 발휘할 때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바둑은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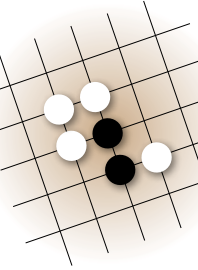
## 고정관념의 틀을 깨라

바둑은 극히 간단한 규칙은 있지만 체스처럼 어디에 돌을 놓을 수 있고, 어디에는 돌을 놓을 수 없다는 규칙이 거의 없다. 바둑판은 작은 크기지만 수많은 변수를 품고 있다. 바둑이란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과 생각이 싸우는 바둑판에서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는 창의적인 수를 놓아야 승리할 수 있다. 공식이나 틀 안에 갇히면 곧바로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다르게 생각해야 새로운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 예절과 품위를 지켜라

‘바둑예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둑은 예의를 중요시한다. 사람의 품격은 기본적인 태도에서 나오는데, 바둑을 둘 때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데서 품격이 나온다. 예를 들면, 자리를 잡을 때는 연장자나 상수가 상석에 앉도록 한다. 바둑돌은 오른 손으로 쥐고, 바둑돌을 놓을 때는 하나씩 집어 놓되 올바른 손자세를 갖춘다. 대국 시작 때나 종료시에는 깎듯이 인사를 나누고, 특히 끝난 뒤에는 서로 “잘 두었습니다”, “잘 배웠습니다”라며 겸양의 인사말을 건넨다 등이다. 중국 광둥성 바둑문화추진회 덩양웨이(鄧揚威) 부회장은 “옛날 사람들은 경쟁은 바둑의 일부분일 뿐이고, 바둑의 더욱 중요한 기능은 수신양성과 사람의 소양을 높이는 데 있다고 여겼다”며 “바둑 한 판 한 판은 모두 엄격한 도덕적 훈련이나 다름없다” 라고 말했다. 바둑을 두는 것은 이처럼 품격을 기르며 도덕적 수양을 쌓는 일인 것이다.



## 바둑과 친해지는 법 - ‘공식에 얽매이지 말고, 차근차근’

**바둑을 배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이창호 9단과 같은 프로기사들은 왕초보편부터 기초완성편, 한수위편 등 수준에 맞는 책을 집필했는데, 바둑의 핵심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를 토대로 기본부터 배울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바둑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책들을 통해 먼저 기본기를 다져보자.

**어느 정도 바둑의 기본을 알았다면 기원이나 집근처 바둑센터를 눈여겨보자.**

요즘 바둑이 인기를 끌면서 초등부부터 성인부까지 각 지역 바둑센터에서는 사교바둑 입문반 클래스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 평소에 바둑을 상대방과 함께 두고 싶었지만 실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인 바둑 클래스를 통해 쉽게 접해볼 수 있다.

**입문자들이 바둑을 배우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배우느냐이다.**

‘바둑은 시작이 절반이다’라고 할 정도로 입문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배우면 동기부여도 되고 더 흥미를 붙일 수 있다.

**바둑은 실력을 나타낼 때 급수로 말한다.**

입문부터 시작해 프로기사까지 구분하는데 먼저 입문을 하면 30급부터 시작을 한다. 실력에 따라 30급, 25급, 10급, 1급 등으로 점점 높아지며 1급을 넘어서면 이제 바둑 급수는 초단으로 들어간다. 초단에서 1단, 2단, 3단으로 시작해 9단까지 갈 수 있다.

**바둑에 입문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조훈현 9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자.**

“요즘 바둑 교육에 대해 확신적이다. 선생이 붙잡고 하나하나 가르쳐준다. 그래서 상상의 자유를 주기보다는 공식을 외우게 한다. 그 결과 바둑시합은 생각을 거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지를 거루는 식이 돼버렸다. 틀에 박힌 교육은 틀에 박힌 사고를 하게 만든다. 그러나 혼자서 실컷 해매본 사람은 공식 따위는 몰라도 된다. 생각을 하면서 자신만의 해법을 찾아내면 되기 때문이다.



# 일본 노후파산, 우리도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노인들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노후준비가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믿었던 일본에서조차

노후파산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노후파산과 우리나라의 현실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빠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 이상)로 진입이 예상되며 9년 뒤인 2027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는 이미 2007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이 걸린 12년보다 훨씬 단축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며 노인문제도 심각한 편이다. 다시 말해 ‘고령화’, ‘장수리스크’ 등에 따른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일본의 고령화에 대한 준비 및 노인정책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을 느껴 왔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후준비가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믿었던 일본에서조차 노후파산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노후파산과 우리나라의 현실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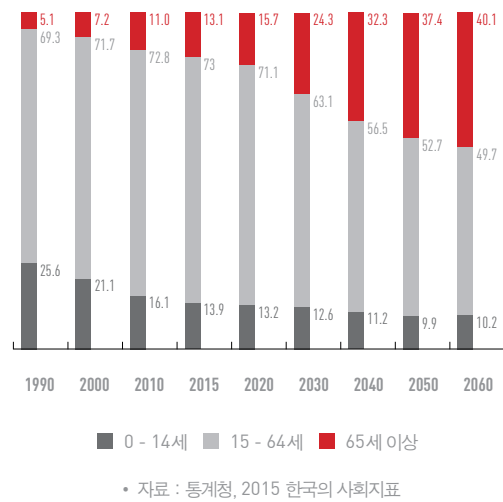
##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일본의 노후파산

일본은 2007년에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이지만 비교적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로 생각되어 왔다. 실제로 일본 후생성 발표에 따르면 아내가 전업주부인 직장인 은퇴자의 월평균 후생연금 수령액은 약 22만엔이며 연금소득이 노후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68%에 달한다.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률도 94.6%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일본의 노인정책을 본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공영방송 NHK가 ‘노인표류사회-노후파산의 현실’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면서 노후파산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를 정리한 책이 국내에 출간되면서 ‘노후파산’에 대한 경각심이 대두되고 있다. 노후파산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일본의 다수의 중산층이 노후에 빈곤계층으로 전락해 버리는 일본의 초고령사회의 현실을 나타낸다. 이것이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오는 것은 노후파산을 맞이한 일본의 노인 대부분이 성실하게 일하며 노후준비를 해온 평범한 소시민이며 더욱이 공·사적연금 등으로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왔음에도 노후파산의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NHK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홀몸노인은 600만명을 넘어섰고 이중 3분의 1인 200여만명은 의식주 관련 모든 면에서 자립 능력을 상실한 채 불우한 노후파산의 삶을 살고 있다. 한 50대 일본 중년 남성의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인터뷰는 노후파산에 대한 충격적인 현실을 말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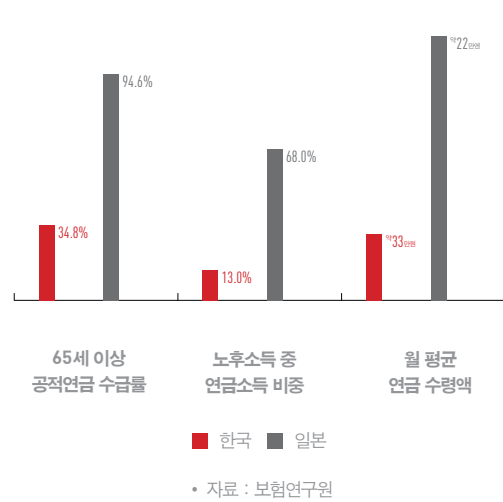
일본에서의 노후준비와 노후파산에 이르는 과정은 다음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일본인 직장인 은퇴자의 월평균 후생연금 수령액은 약 22만엔이며 조금 여유있는 생활을 하려면 약 26만엔이 필요하다고 한다. 만약 연금수입에만 의존한다면 연간 48만엔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만큼을 저축 및 퇴직금 등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노후생활을 설계하게 된다. 그러나 예상했던 수명보다 더 길게 살게 되거나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준비했던 저축금액이 부족하게 되면서 노후파산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본

의 평균수명은 최근 85세 전후로 연장되어 왔으며 곧 100세 시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퇴 이전에 당시의 기대수명을 예상하고 노후준비를 한 경우 노후과산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구나 자신 또는 배우자가 중병에 걸리거나 부양할 부모가 있거나 자녀가 취업하지 못해 부모에 얹혀사는 경우 등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에는 기존에 고려했던 노후설계와는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일본 노후과산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연령별 인구 구성비(%)



한국과 일본 고령세대의 연금소득 관련 지표 비교



우리나라에서 노후과산에 대한 우려는 더욱 심각

우리나라에서도 노후과산은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1,727명을 분석했는데 60대 이상이 428명으로 24.8%를 차지했다. 파산자 4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이다. 노후과산의 유형을 성별로 살펴보면 주로 남자는 사업실패나 퇴직 후 창업 실패로 인한 채무 때문에 파산으로 몰리는 사업형이, 여자는 사별이나 이혼 후 생계를 혼자 책임 지다가 발생한 카드빚이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생계형으로 나타났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의 노인세대는 자녀 부양 등으로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일단 빚을 지게 되면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노년층의 파산선고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노인은 노후자금이 부족해 이를 위한 경제활동이 필요하지만 일자리 또한 충분하지 못하다. 서울시청 산하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일하는 노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노인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이 하루 평균 12.9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8시간)보다 오래 일하지만 시간당 평균 임금은 5,457원으로 조사 당시의 최저임금(5,580원) 수준보다 낮았다. 일자리도 85.4%가 경비와 청소, 가사도우미, 운전자 등 단순노무직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며,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고용률은 40%에 불과하다. 65세 이

상으로 확대한다면 일하는 노인의 숫자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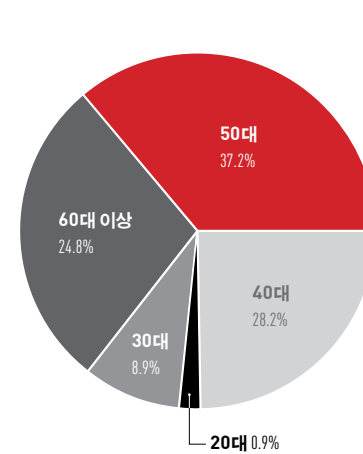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매우 취약하다. OECD(2015)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평균(12.4%)의 4배로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로 조사되었다. 이는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상태에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노후과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연금수입이 적은 것도 노후과산을 증가시키는 요인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이 노후 수입원 중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8%에 달할 정도로 연금을 통해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온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노후 수입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3%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의 노인가구 소득원에서 연금 등 국가나 사회로부터 받는 소득이 평균 59%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다. 이처럼 한국에서 연금이 노인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현행 연금지급 구조가 낸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비례해서 연금 급여액수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자, 적용제외자를 포함한 미가입자 등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4분의 1 수준인 561만여 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앞으로 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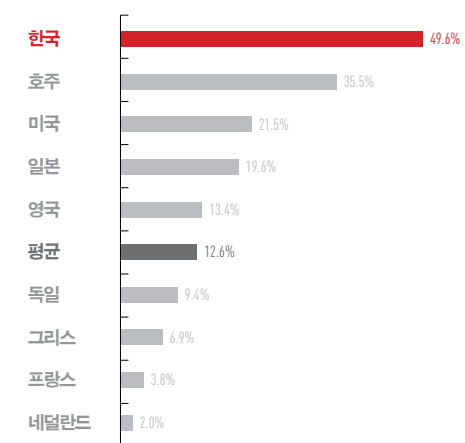
그렇다고 한국 노후세대들이 연금 이외의 저축이나 퇴직금 규모가 충분한 것도 아니다. 이들은 40~50대 경제활동 시기에 자녀세대의 과도한 교육비를 부양하는 동시에 부모세대를 부양하면서 자신의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세대들이다. 더구나 이들의 자녀들이 노후세대를 부양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다. 이와 같이 노후수입에서 차지하는 연금의 비중이 적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노

연령대별 파산자 구성



• 주 : 2016년 1월~2월 파산선고자 기준  
• 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OECD 주요 회원국 노인빈곤율



• 주 : 노인빈곤율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전 국민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노인의 비율  
• 자료 : OECD



후과산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훨씬 준비가 잘된 일본에서조차 노후과산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의 급속한 고령화는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평균 수명 연장 등을 고려한 충분한 노후설계가 필요

의료기술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평균 수명 연장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도 노후과산이 수명이 크게 연장됨에 따라 발생하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과거 상황에 기반한 노후설계는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더욱 풍부한 노후설계가 필요한 것이다.

우선 은퇴 이후에 노후자금의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요인들을 통제해야 하며 적어도 이를 감안한 노후준비가 필요하다. 은퇴 이전의 자녀 교육비는 노후 준비자금의 규모를 감소시키는 요인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은퇴 이후에는 추가로 부양해야 할지도 모르는 가족도 염두에 뒀어야 한다. 특히 본인이나 배우자가 암이나 치매 등 중병에 걸릴 경우 막대한 병원비가 소요되는 의료비 폭탄 가능성이 크게 주의해야 한다. 이는 급격한 노후자금 감소를 초래해 노후과산에 이르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인이나 배우자의 건강한 신체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정기적인 검진 등을 위한 병원비도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항목에 추가되어야 한다. 실손보험이나 간병보험 등을 통해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낮은 연금소득 비중을 개선해야 한다. 연금을 통한 풍부한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비를 합리적으로 줄여 추가적인 연금납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한 연금납입의 증액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보통 단순히 소득공제 목적을 위해 연금을 납입하기만 하고 연금 수익성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연금 자체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동산의 보유는 현금흐름에 방해가 되는 요소이다. 주택 등 부동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현금흐름을 확대하는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명이 갈수록 연장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노후자산의 증식을 위한 투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안정성이 충분히 담보가 되는 투자이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 및 정치권 또한 연금재산 축적 등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연금납입을 촉진하거나 노후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세제정책이 대표적인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선거 등을 위한 일회성 정책보다는 노인일자리 확대 등 근본적인 정책 수립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점증하고 있는 노후과산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평균수명 증가와 은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현금흐름을 확대할 수 있는 은퇴설계가 필요하다.

# 더 행복한 생활을 위한 하나의 생각, 하나멤버스

하나멤버스와 함께하면 당신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가입하면 혜택이 쏟아지는 행복한 멤버십과 만나보세요.



## HANA MEMBERS 하나멤버스

하나금융그룹 6개 관계사의 통합 멤버십 서비스. 저축부터 보험 가입, 카드 사용, 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거래를 통해 쌓인 하나머니와 제휴사 포인트를 합산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금융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하나멤버스 회원이 되어 다양한 일상 속 행복을 누리보세요.

### 하나머니란?

연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하나멤버스의 통합 멤버십 포인트입니다. 하나멤버스 가입 고객은 누구나 하나금융그룹금융 거래 및 일반 가맹점에서 하나머니를 적립하고 연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적립해 편리하게 사용한다!  
상상하는 모든 게 가능한 하나머니

- 연금처럼 ATM출금도 자유롭게!
- 내 계좌로 입금도 안전하게!
- '보내요'와 '주세요'로 친구와 주고받기도 다정하게!
- 가맹점에서 바코드 결제로 간편하게!
- 부족하면 내 계좌에서 충전도 빠르게!
- 다른 포인트와 교환하여 한꺼번에!
- 교통카드 충전도 손쉽게!

### Hana Money 1 Click



**어디서든**  
(어디서 써야 하는지 몰라도)

**그냥 결제만 하고**  
(하나머니를 사용한다는 말 없이)

Cashier가  
일반 결제 처리만 하면

하나멤버스 앱이  
Push로 알려주니까

모바일 Push 팝업에서 하나머니 '사용하기' 클릭!

**'사용하기' 팝업**이면 하나머니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하나머니 잔액 천원 이상 & 매출금액의 20%까지 하나머니 사용이 가능합니다.

## 쉽고 빠르게 하나멤버스에 가입하세요

모바일 [하나멤버스] 앱 다운로드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가입

하나멤버스 회원 가입 완료!

step 1

step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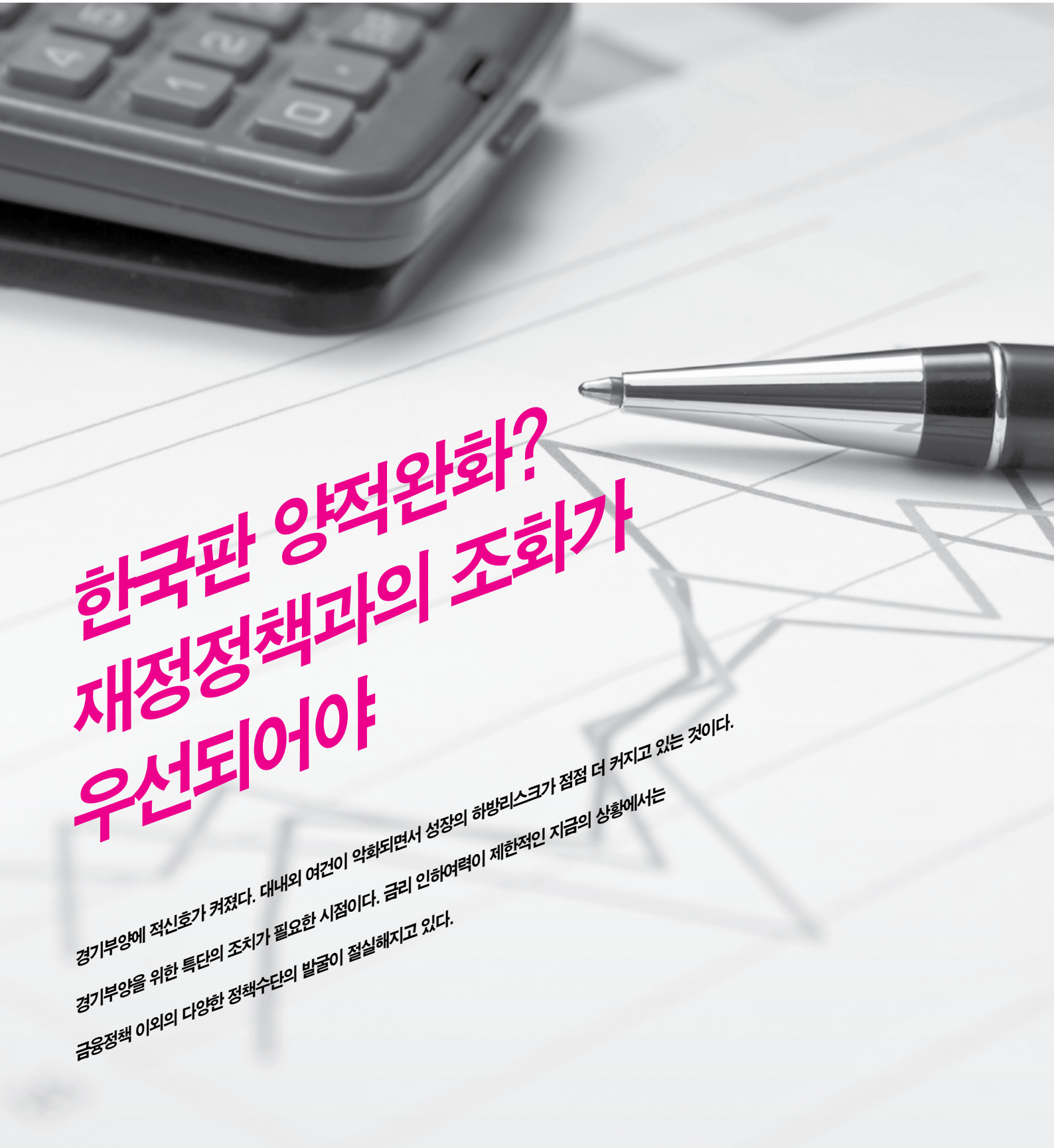
step 3

www.hanamembership.com

하나멤버스 를 검색해 보세요







# 한국판 양적완화? 재정정책과의 조화가 우선되어야

경기부양에 적신호가 켜졌다.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금리 인하여력이 제한적인 지금의 상황에서는  
금융정책 이외의 다양한 정책수단의 발굴이 절실해지고 있다.

**'한국판 양적완화'  
= 한국은행의  
미시적인 역할 강화?**

지난 18대 총선이 '대운하·뉴타운' 등 건설관련 이슈로, 19대 총선이 '경제 민주화·무상복지' 등 복지관련 이슈로 뜨거웠던 반면 지난(20대) 총선은 전체를 관통하는 경제이슈가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새누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론'이 화제가 되긴 했지만 금리정책의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비판과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과 관련된 논란만 야기한 채 총선결과가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서 흐지부지 되었다.

새누리당이 제기한 '한국판 양적완화'는 '거시경제환경 대전환을 위한 부문별 전략' 중의 하나인 '한은에게 보다 과감한 금융정책 주문' 항목에서 등장한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제대로 돈이 돌고 있지 않기에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중자금이 막혀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 식인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한국판 통화완화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1)한국은행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 산은채권을 인수하고, 2)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해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20년 장기분할상환제도로 전환시킬 것을 주문한 것이다. 공약집의 내용을 보면 '한국판 양적완화'라는 거창한 표현과는 달리 한국은행에게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미시(Micro)적인 역할을 강화하라는 요구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선별적'인 양적완화인 셈이다.

총선결과가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흐지부지 될 뻔했던 '한국판 양적완화'가 박대통령의 언급으로 다시 금물살을 타고있다. 실제로 '한국판 양적완화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여지가 없지 않다. 지금까지 해왔던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식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이다. 양적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은 일반적으로 정책금리가 제로 또는 실효하한에 도달하거나 금리의 파급경로가 훼손되었을 경우 금융안정 회복과 경기침체 방지를 위해 취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은 지원방식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 신용시장 지원, 국채매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수단은 서로 다른 파급 경로를 거치며 그 효과도 상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책 이외의  
다양한 정책수단의  
발굴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

사실 국내의 경우에는 시중 유동성의 호조세 지속과 금융권의 대출공급 확대, 그리고 장단기 채권시장의 왜곡현상 부재 등으로 선진국 중앙은행이 도입했던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도입 필요성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으나 금리 인하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책금리 이외의 다양한 정책수단의 발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한 선진국들과 달리 통화정책 여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의 도입이 실효성을 높인다는 견해도 있다. 금리정책의 여력이 남아있을 때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을 통해 금리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대출확대의 효과는 크고 부작용은 적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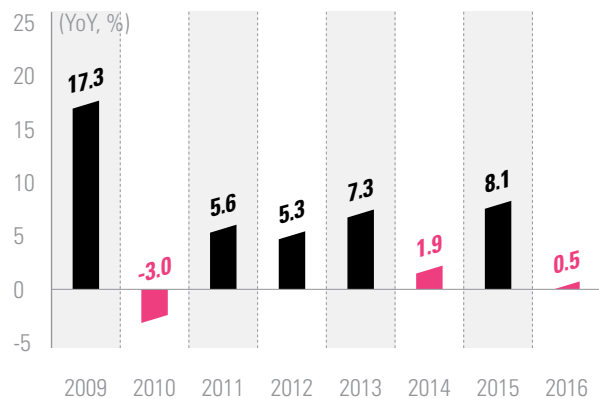


특히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경우, 가계 부채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특정 산업에 선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부양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선별적인 영역에 유동성 공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면 금리정책의 대체수단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2월 금통위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원 증액(20조원→25조원)했으나, 실행분이 한도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유인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금리정책의 대체수단으로 양적완화 등 한은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도입보다는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가 우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주로 사용한 경기부양 카드는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이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bp나 인하((3.25% → 1.5%)하면서 경기를 뒷받침해 왔다. 반면 정부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재정확대 정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빠른 인구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등으로 미래의 재정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 차례(2009, 2013, 2015년)에 걸쳐서 추경예산이 편성되기도 했지만 2009년을 제외할 경우 세입결손 보전이 포함된 소극적 편성이 많았으며 추경편성 다음해에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어김없이 긴축적인 재정이 편성되곤 했다. GDP 대비 정부지출(소비+투자) 비중 역시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한은이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한 2012년 이후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2012년 평균: 19.6% → 2015년 1~3Q: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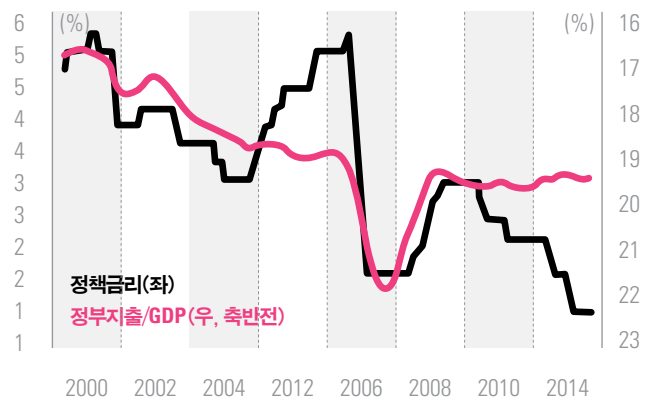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와 대비되게  
정부의 재정지출  
비중은 변화가 많지 않아

금융위기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통화 및 재정정책 비교



자료: 한국은행

지난 4월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성장지원을 위해서는 구조조정과 완화적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확대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단독적인 금리인하는 정책 노력만을 소진시킬 뿐이기 때문에, 재정확대와와의 조합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역설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저성장 장기화 및 상시 구조조정 등으로 민간부문의 부진이 계속됨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장이 둔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분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복지확대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의 타이트한 재정건전성 관리가 한국의 신용등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총수요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금리인상 요인이 되며 다른 한편으로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공공투자가 민간부문의 투자를 약화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일으킬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민간부문의 투자가 약화되고 있는 경우라면 재정지출 확대의 구축효과와 시중금리 상승 우려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소극적인 정책운용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경우 세수(재정수입)가 목표에 미달하면서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구조적으로도 저성장 장기화 및 상시 구조조정 등으로 민간부문의 부진이 계속됨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장이 둔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분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복지확대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0.5%로 OECD 평균(22.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저성장 장기화와 상시  
구조조정 등으로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재정투입 분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신성장 분야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중국경제의 불안으로 자동차, 조선 등 기존의 기술추격형 제조업의 경기 건인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변신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바이오, 부품소재, 고부가·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국가차원의 R&D 프로젝트 발굴 등으로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이 촉발할 수 있는 고용약화에 대비해 실업자 금융지원, 재취업 및 창업 교육 및 지원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재정지출이 확대된다면 구조조정의 경기둔화 입력을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 성장 분야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필요



# 4.13 총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 시장수급이 더 중요

4.13 총선이 여소야대로 마무리되면서,

선거 결과가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

4.13 총선이 부동산시장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어쩌면 선거라는 불투명한 변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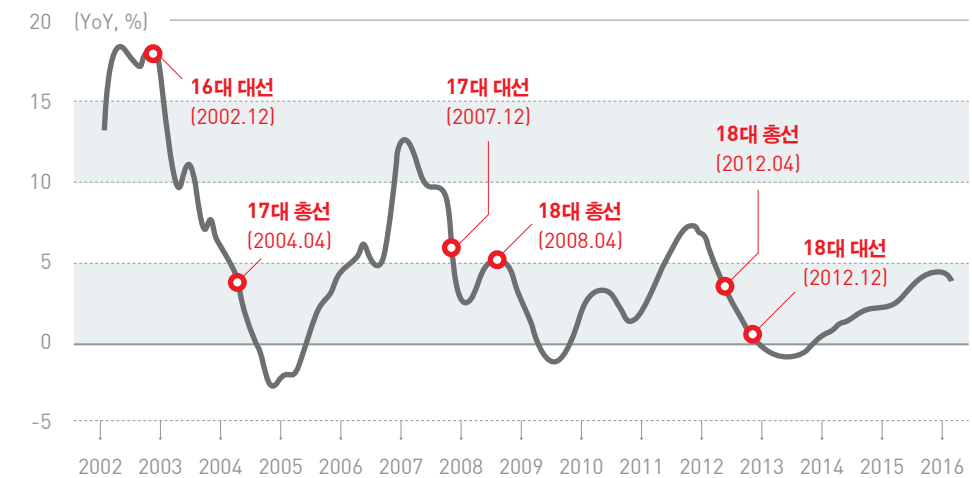
없앴다는 점이 아닐까. 4.13 총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살펴보자.

## 선거와 부동산시장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아

선거와 부동산 시장 사이의 상관관계는 사실 명확하지 않다. 뉴타운 열풍이 불었던 2002년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개발 공약들이 경쟁적으로 제기되었고 집값도 크게 올랐지만, 그 중간 연도인 2004년에는 총선이 있었음에도 전국 주택가격이 하락했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은 그렇다 쳐도,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치러진 2012년에도 주택가격은 물가 상승률을 크게 밀돌았다. 최근 10여년 사이 선거와 부동산 시장은 일관된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선거가 시장 심리에 다소 영향은 줄지라도 시장 흐름을 좌우하는 요인은 아닌 셈이다.

선거와 전년동기대비 전국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 : KB국민은행



## 여소야대로 끝난 4.13 총선, 시장 영향은 제한적

4.13 총선이 여소야대로 마무리되면서, 선거 결과가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 한국형 양적완화, 부동산 부양책 등에 적극적이던 정부와 여당이 추진동력을 일정 부분 상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선거구별로 다양한 개발공약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이미 알려진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한편 야당 공약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투자 심리를 냉각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사안이므로 입법화 진행에도 시간이 걸리고 임대시장에 국한된 내용이므로 실제 파급력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조금 과장하면, 4.13 총선이 부동산시장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선거라는 불투명한 변수를 없앴다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시장수급, 지방은 대출규제, 수도권은 물량부담이 이슈

2/4분기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보다 악재가 많다. 5월 초에는 주택 구입 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비수도권에도 확대 적용된다. 지방광역시와 기타지방의 올해 1/4분기 주택가격 상승률은 2015년 같은 기간의 1/6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는데, 시장둔화가 심화될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대출규제가 시행된 수도권에서는 과중한 공급물량이 걱정거리다. 연간 아파트 분양물량 18만호의 50%를 넘는 9.6만호가 2/4분기, 특히 4~5월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남양주, 하남, 시흥, 화성, 평택에서는 5,000호 이상의 아파트가 분양될 것으로 보여 물량의 소화가능성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시장 양극화 심화 전망, 수도권 저평가된 주택의 투자매력 부각

연초부터 나타나고 있는 시장 양극화가 총선 이후 보다 뚜렷해질 수 있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보다 안전한 자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당분간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 이미 검증된 인기지역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높다. 한편 최근 구매자들은 가격하락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투자를 선호하는데, 이에 따라 서울 및 서울에서 통근하기 쉬운 지역에 가격이 저평가된 주택이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지방의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과 그 인근지역 주택 중 지방 신규분양 주택가격을 밀도는 경우도 꽤 늘었기 때문이다.



#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700만원**  
\* 연금저축 불입액과 퇴직연금 불입액을 합산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대상)

**400만원**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2015년부터 적용)

대폭 확대된 퇴직연금 세제혜택!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연말정산시 최대 115만 5천원\* 세액공제 받으세요

\* 연간 납입액 700만원, 16.5% 세액공제인 경우  
- 13.2% 세액공제 적용시, 최대 92만 4천원 세액공제

세제혜택 포인트

## ✓ 납입원금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간 700만원 한도 x [ 13.2% / 16.5% ]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 16.5%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

## ✓ 퇴직금 및 추가불입한 적립금에 대한 운용 중 과세이연 효과

## ✓ 퇴직연금전용펀드로 낮은 펀드 수수료로 자산 증대 효과

수수료 \* 가입 후 1년 경과시 10% 할인 적용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 1억 이하 0.20%	- 1억 이하 0.20%
- 1억 초과 0.175%	- 1억 초과 0.175%

가입조건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한도 / 연금저축, DC가입자 추가부담금 합산 기준 / 모든 금융기관 합산 적용함

- 퇴직연금 DB, DC, 기업형 IRP 가입자
- 퇴직연금에 퇴직급여를 적립한 자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원리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에 인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 다만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인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본 자료 기재된 집합투자증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조에 의한 적립금을 납입하는 퇴직연금 전용상품입니다. ※ 과세 기준 및 방법등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실시규 제 16-0004호(2016.02.01 ~ 2016.03.31)

1588-3111  
www.hanaw.com



# 2050년, 전세계 노인 62%가 아시아에 집중



지난 3월 28일 미국 국립보건연구소(NIH)가 '늙어가는 세계 2015' 보고서(141개국 대상)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5.9%로 일본(40.1%)에 이어 세계 2위로 예상했다. 고령화 속도에서는 유럽의 선진국들은 100여년 이상 걸리는 반면 한국은 한 세대 정도 걸렸다. 2050년 인간의 세계 평균 기대수명은 76.2세, 일본과 싱가포르는 기대 수명이 91.6세로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국가로 전망됐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소(NIH)는 미국 인구조사국의 '늙어가는 세계, 2015'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세계 국가별 초고령화 속도, 기대 수명 등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초고령화 속도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보다  
속도 빠른  
한국의 고령화

세계 최대의 노인국가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일본은 어떨까. 일본조차 1970년 7%에서 두 배인 14%로 늘어나는데 25년이 걸렸고, 21%로 늘어나는데 12년이 더 걸려 모두 37년이 걸렸다.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중국도 2001년 7%에서 두 배로 늘어나는데 23년, 14%로 늘어나는데 11년이 더 걸려 모두 34년이 걸릴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노인국가는 여전히 일본이다. 지난해 노인 인구 비율이 26.6%로 가장 높았던 일본은 2050년 40.1%에 달해 여전히 최대 노인국가로 남을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00년 7%에서 2050년 약 36%로 50년 만에 5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비교대상이 없을 정도로 가파른 증가세다.

일본, 한국,  
홍콩, 대만 순으로  
고령화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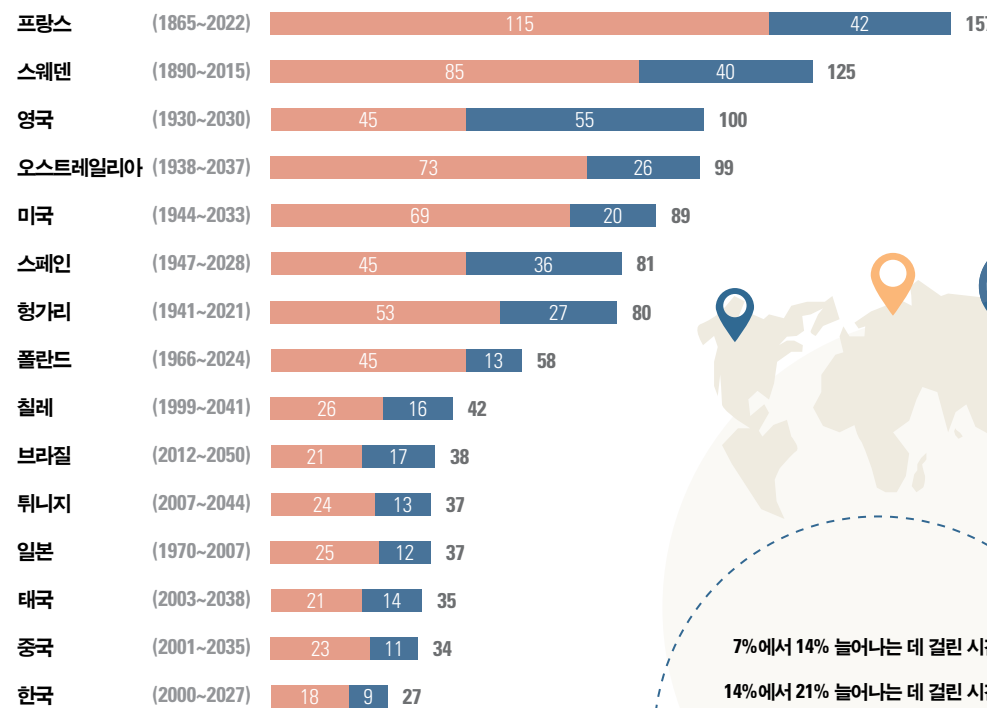
일본과 한국에 이어 아시아 다른 나라들도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2050년 노인인구 비율에서 홍콩이 한국 다음으로 3위, 대만이 4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아시아 전체가 2015년 7.9%에서 2050년 18.8%으로 두 배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2015년 10.1%에서 2030년 17.2%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2050년 아시아는 전 세계 노인인구의 62.3%를 차지할 전망이다. 2015년 55.3%에서 7%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유럽은 2015년 17.4%에서 2050년 27.8%로 비교적 증가세는 완만하고, 북미도 2015년 15.1%에서 2050년 21.4%로 더욱 완만할 전망이다. 아프리카는 2.5%에서 6.7%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느린 지역이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 8.5%(6억명)에서 2050년 16.7%(16억명)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이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도 노인 복지 수준은 하위권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은 80%를 넘지만 2010년 기준 노인 빈곤율이 45%를 넘어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20% 안팎인 미국·일본의 2배가 넘고 네덜란드의 40배를 넘는다. 65세 이상 노인 중 국가의 무료 의료 지원을 받는 비율도 한국은 6.4%에 그쳤다. 일본은 고령 인구 중 12.8%, 이스라엘은 22.1%가 국가 지원을 받고 있다.

세계 장수국가는  
일본과 싱가포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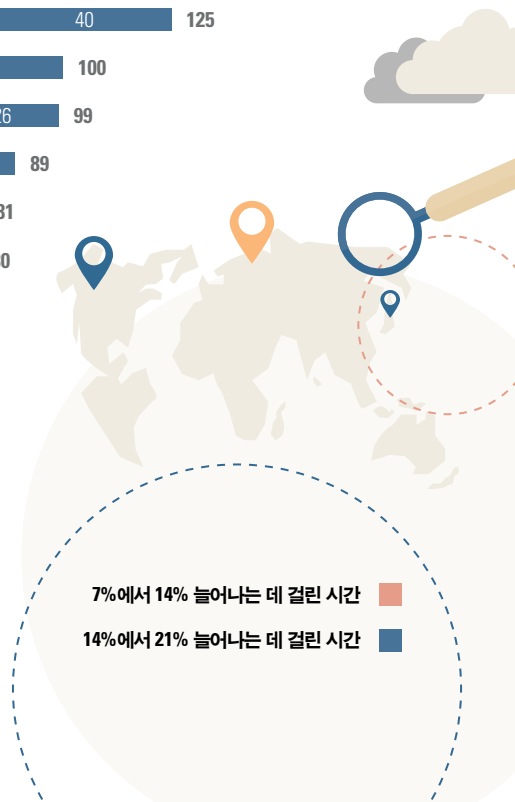
2050년 인간의 세계 평균 기대수명은 76.2세로 예상됐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기대 수명이 91.6세로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국가로 전망됐다. 한국은 84.2세로 5위에 올랐다. 남성의 기대수명은 81.5세이고 여성은 87.1세로 여성이 5년 이상 오래 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세계의 초고령화 현상은 다양한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의료서비스, 독립적 생활, 생산 참여, 노후 자금 등 고령화 시대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각 나라별 65세  
노인 인구 비율이  
7%에서 14%,  
14%에서 21%로  
늘어나는 데  
걸린 시간

(자료 : NIH 홈페이지)



7%에서 14% 늘어나는 데 걸린 시간  
14%에서 21% 늘어나는 데 걸린 시간





# 여섯 줄의 선율로 행복을 더하다

잔잔한 여섯 줄의 선율에 아날로그 감성이 되살아난다. 때로는 오랜 친구처럼, 때로는 애인처럼 친숙한 기타의 숨은 매력에 빠져보자. 나의 처음 기타에 도전하는 법.

기타는 누구나 주변에서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는 악기 중의 하나다. 기타만큼 만만하고 편하게 접근 가능한 악기가 있을까.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시대의 아이콘으로 기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시대를 뛰어넘어 사람들의 삶에 기쁨을 안겨주는 악기가 기타이다. 소박하게 우리 삶의 한켠에 머물고 있는 기타. 하지만 그것이 표현할 수 있는 음악적 영역은 무한하다. 베토벤은 "기타는 작은 오케스트라다"라고 했듯이 무한한 음악적 수용력은 기타가 가진 매력이다. 가장 많이 연주되는 기타에는 클래식 기타, 통기타, 전자 기타 등이 있다. 특히 애잔하게 서서히 젖어드는 기타 특유의 '잔잔함'을 표현하고 싶다면 클래식 기타를 추천한다.

클래식 기타는 스프루스, 시더, 메이플, 마호가니, 로즈우드 등 다양한 목재를 재료로 사용한다. 특히 앞판의 목재에 따라 음향에 많은 차이가 있다. 보통 앞판의 목재에 따라 '스프루스 악기'와 '시더 악기'로 구분한다. 스프루스는 명료한 소리, 시더 악기는 울림이 풍부한 소리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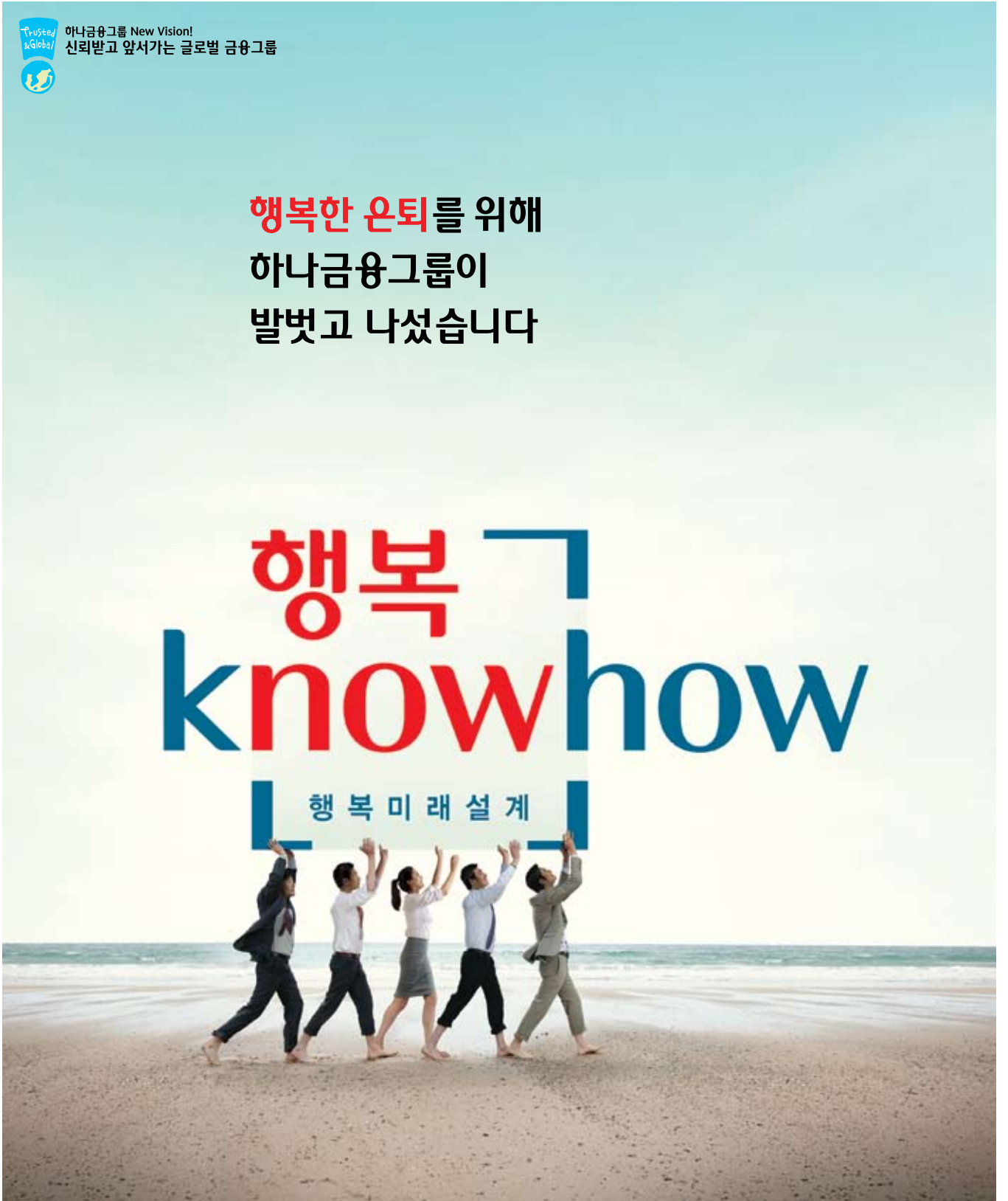
## 초보자를 위한 생생한 TIP

### TIP.1 무조건 시작하라.

기타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장 가까운 악기점으로 가서 기타를 만나자. 모양, 가격은 구애받지 말고 눈에 띄는 기타를 선택하면 된다. 원하는 음악스타일과 예산을 갖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TIP.2 그리고 즐겨라.

치열함을 경계하라. 치열한 연습으로 부담을 갖기 보다는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에 기타와 여유롭게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브랜드 오아시스의 기타리스트였던 노엘은 이렇게 말한다. '5년쯤 지난 후 재능이 없다는 걸 알게 된다 해도 어때. 그냥 방구석 스탠드에서 세워놓기만 해도 보기에 멋지잖아.'



### 하나금융그룹의 은퇴설계 통합 솔루션 행복 knowhow


- 통합 솔루션으로 완벽하게**
  - 어디서나 준비된 상품을 만날 수 있고, 동일한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
- 전문 시스템으로 탄탄하게**
  - 은퇴설계 전용 인프라 구축
  - 일대일 맞춤 컨설팅 전문인력 제도 운영
-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든든하게**
  - 은퇴 전용 상품 운영
  - 비재무 설계 서비스 통합제공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하나은행,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하나증권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이며, 하나 S카드는 부보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가입 전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6798호 2014.10.13~2015.09.28)

미래설계를 위한

# 행복 knowhow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금융투자빌딩 12층 | TEL. 02-2002-2200 | FAX. 02-2002-2610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생명, 하나카드